

제13권 5호

2023. 2. 27~2023. 3. 12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와 금산분리 규제 완화
- 이슈분석** 반도체 시장 현황 점검 및 전망
- 금융경영브리프** 중국 빅테크들의 챗봇 개발 가속화
Wells Fargo, 기업금융 플랫폼 고도화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과 열린 결말
외 환 : 통화정책 향방에 따른 高변동성 장세
부동산 : 심리 위축과 거래 침체는 시장 회복을 지연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원 김종현(jh.kim_)

논단

연구위원 류창원(cwryu)

이슈분석

수석연구원 우창희(chw)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원 강미정(ashleykang)
연구원 황선경(skhwang)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윤석진(sjyun82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부동산 |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와 금산분리 규제 완화
- 04 **이슈분석** 반도체 시장 현황 점검 및 전망
- 08 **금융경영브리프** 중국 빅테크들의 챗봇 개발 가속화
Wells Fargo, 기업금융 플랫폼 고도화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과 열린 결말
외 환 : 통화정책 향방에 따른 고변동성 장세
부동산 : 심리 위축과 거래 침체는 시장 회복을 지연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류 창 원 연구위원(cwryu@hanafn.com)

은행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령화, ESG라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은행 고객들의 어려움은 이제 금융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미 해외 은행들은 ‘Beyond Banking’을 내세우며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도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후생 제고, 기업의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기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은행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변화는 상시적이지만 코로나 19 이후의 변화는 격변이다.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빅테크들의 금융업 침투와 각종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등장 등 은행 업무를 해체(unbundling)하는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성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커지고 있다. 가트너는 2030년까지 은행 80%가 플랫폼 사업자 등에 종속되어 폐업하거나 흡수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동반된 저성장, 그리고 ESG라는 국가적 이슈이면서 은행 고객과도 직결되는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은행들은 뱅킹앱 고도화와 상품 역량 강화 등의 노력으로 수성하고 있으나, 이제는 고객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돕고 사회적 아젠다 해결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 구조변화에 따른 은행 고객의 어려움, 금융만으로는 부족

빅테크의 등장으로 MZ 세대를 비롯한 모든 고객들은 손안에서 한번에, 내가 있는 곳에서 알아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사 계약과 환전, 여행보험 가입을 일일이 손품, 발품 팔아야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이들 눈에 금융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고령층의 니즈는 더욱 절실하다. 고령층은 자산 운용 및 관리, 자산 승계,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등 금융과 비금융을 넘나들며 매우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하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철저히 분리되어 고령자가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한다. 치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면 관련 도움을 찾아다니기조차 힘들다. 스마트폰 이용도 매우 어렵기만 하다.

MZ세대, 고령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 니즈가 매우 큼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크다. 자금조달 외에도 경영, 판매 등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는 은행들이 자금을 공급하기 어렵다. 상거래 플랫폼에서의 활동 데이터나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은 플랫폼이나 상거래를 직접 영위할 수 없어 제휴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해 보려 하지만, 절차의 용이성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돕고 판로를 개척하는 일에도 도움이 절실하다.

중소기업들은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ESG 경영을 위한 관리역량이나 탄소 저감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관련 제도를 따라가기도 벅차다. 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은 물론 필요하고, 탄소배출량 측정부터 배출권 거래,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기 원한다.

∴ 해외 은행들은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통해 사회 기여 확대

해외 은행들은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경쟁력을 제고

이미 많은 해외 은행들은 ‘Beyond Banking’ 을 핵심 경영 아젠다로 삼고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 ESG 환경에서 은행의 역할이 단순히 자금중개를 넘어 국가와 개인,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금융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경영전략에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일본 은행들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과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히로시마 은행은 인재소개업을 통해 인력부족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상사를 운영하기도 한다. 홋카이도 은행 등은 지역 특산품을 지역의 소비자와 연결하는 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핵심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인도 State Bank of India는 ‘YONO Krishi’라는 농업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 플랫폼에서는 첨단 농업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향상시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자재 및 장비 중개, 맞춤형 자문 등 농업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농업관련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기업들이 ESG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 및 비금융

이 복합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탄소감축 설비로의 전환계획을 설계해 주고 필요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BNP Paribas는 ‘ClimateSeed’라는 탄소 배출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 SMBC는 탄소배출량 측정 회사(Sustana)를 설립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들이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

국내 은행들도 미래 은행의 모습으로 ‘생활금융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온전한 생활금융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특히 ‘생활’은 비금융 서비스이므로 이를 금융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이 낮아야 하는데 관련 사업 추진에 법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업무위탁이나 제휴를 통해 시도하고 있으나 정보 활용 등에서 제약이 많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배달앱 등 일부 은행이 직접 수행하는 비금융 서비스가 허용되고는 있으나 한시적 제도라 불확실성이 크다. 은행을 보유한 빅테크는 모빌리티 업체를 인수하여 은행 서비스와 결합이 용이하나, 은행은 모빌리티 업체를 인수할 수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다.

국내 은행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DBS의 융복합 서비스도 규제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7년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은행이 비금융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DBS는 제휴와 자체 사업을 결합하여 주택, 여행, 자동차, 유틸리티 등 다양한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하였다. 일본도 저성장, 고령화, ESG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신뢰가 크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은행이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당국은 금산분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제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은행이 비금융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은행 본체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은 주의해야 한다.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를 규제하거나 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 등 섬세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어 은행의 융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

반도체 시장 현황 점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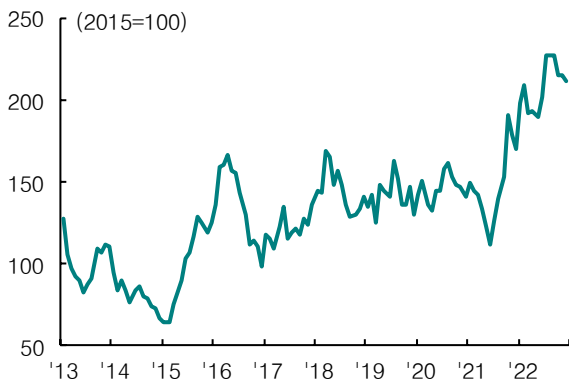
우창희 수석연구원(chw@hanafn.com)

IT 세트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 재고량이 급증하고 가격은 급락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이에 감산, 장비 반입 연기, 공정 전환 최소화, 투자 축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2분기 이후 모바일DRAM 및 서버DRAM 수요가 점차 살아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고 수출도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챗봇 기반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스페셜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도체 업황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 IT 세트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 재고량이 크게 높아졌으나 3분기 이후 안정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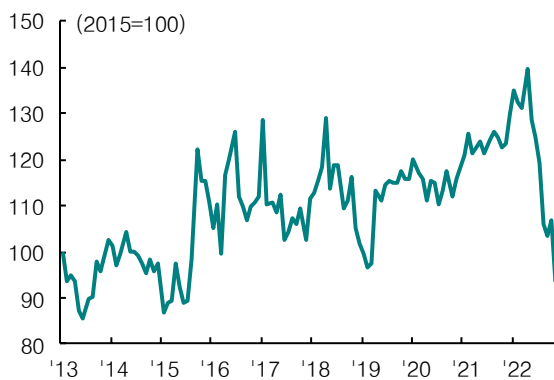
- IT 세트 수요 부진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불황으로 반도체 재고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재고 수준은 20주 이상 높아진 것으로 업계는 추정
 - '22.4분기 고객사 및 공급사 보유 재고 : 각각 6~14주, 16~17주
- 20주 재고는 현재 반도체를 전혀 생산하지 않더라도 재고만으로 약 5개월 동안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적정 재고 레벨은 통상 4~5주가량으로 보고 있음
 - 시장에서는 이러한 재고 수준이 10년 만에 최대라고 언급
 - 지난해 가동률 지수도 연초(134.9) → 연말(96.4)로 28.5% 하락
- 반도체 재고는 올해 2분기에 정점을 찍고 생산량 조절과 모바일 및 서버DRAM 수요 회복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생산 및 유통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3분기 이후 일부 AI관련 DRAM의 경우 수급이 타이트해질 가능성도 존재

■ 반도체 재고 지수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 반도체 가동률 지수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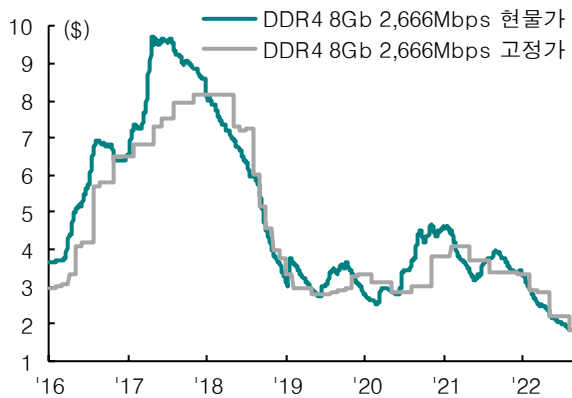
■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재고 증가,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조절 중

- PC용 D램 고정가는 2021년 10월까지 4.1달러를 유지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이 거듭되면서 2월 현재 1.81달러로 15개월 동안 55.9% 하락
 - D램¹⁾ 고정 거래가격(\$): ('22.1분기) 3.41 → ('22.2분기) 3.35 → ('22.3분기) 2.85 → ('22.4분기) 2.21 → ('23.2월) 1.81
- 수요 부진, 재고 증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장비 반입 연기, 웨이퍼 투입량 조절 등을 통해 인위적인 감산에 돌입
- SK하이닉스는 수익성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웨이퍼 투입량을 감소시켜 생산량을 줄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 대신 생산라인 최적화, 차세대 제품 공정전환 등을 진행하면서 자연적인 감산(기술적 감산)으로 시장 상황 대응 중
 - 생산라인 유지보수, 공정전환, 최적화 등은 출하량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효과

■ SK하이닉스는 투자를 크게 축소하지만 삼성전자는 전년 수준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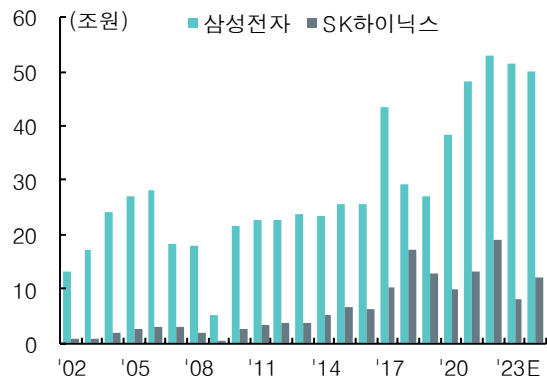
- 반도체 생산량 조절뿐만 아니라 투자 축소도 진행 중으로 SK하이닉스는 3분기 및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투자를 50% 이상 감축하겠다고 언급
-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는 올해 Capex 규모를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 밝히면서 오히려 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를 통해 20조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반도체 불황 기에도 투자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
 - SK하이닉스 및 삼성전자의 2022년 투자액은 각각 19조원, 53조원 규모
- 한편 올해부터 수요가 증가하는 DDR5, HBM 제품군 및 1anm, 1bnm 등의 선단 공정, 초고다층 기반 제품들에 대해선 Capex 규모가 유지될 전망

■ DRAM 현물가 및 고정가 추이



자료 : DRAMeXchange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apex 추이 및 전망



자료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Bloomberg
주 : 23, 24년은 블룸버그 추정

[1] DDR4 8Gb 2,666Mb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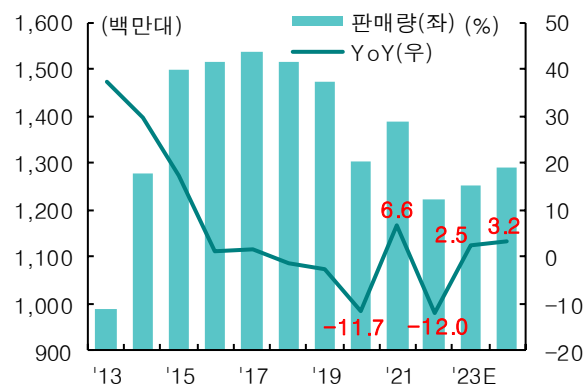
■ 모바일기기 수요가 개선되며 스마트폰向 모바일DRAM 수요 회복 전망

- 20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 급속한 위축에서 소폭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어 모바일DRAM 수급은 연말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일 전망
 - 2023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대비 2.5% 성장한 12억 5,000만대 예상
- 지난 1월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월대비 약 40% 이상 증가하며 리오프닝 영향에 따른 모바일 IT기기의 수요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모바일 DRAM은 1분기까지 재고 조정이 진행된 뒤 2분기에 유통 재고 정상화, 3분기부터 출하량 정상 궤도 복귀 예상
- 지난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23 시리즈는 7일 동안 109만대의 사전 판매를 기록하며 전작인 S22가 기록한 역대 사전 판매 기록(101.7만대)을 경신하며 침체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수요 회복 기대

■ 하반기부터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 전망에 서버DRAM 수요 빠르게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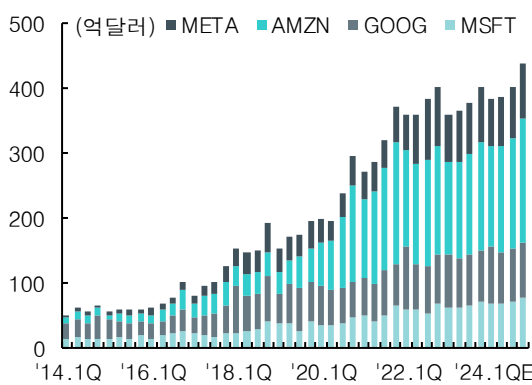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 계절적 요인, 서버용 신규 CPU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 1분기 ~ 2분기 서버DRAM 출하량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
- 2분기 이후 DDR5 규격이 적용된 인텔의 신규 CPU가 대량 생산 체재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2]들은 Capex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
 - 신규 CPU로의 플랫폼 전환에 따라 고용량 서버DRAM 채용률 증가 예상
- 중국의 도시 봉쇄가 풀리고 리오프닝 영향에 따라 중국 하이퍼스케일러들도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됨
 - 2020년 중국 업체들은 향후 3~5년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7천억위안(13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으나 코로나 19로 투자 부진

■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 및 전망



자료 : Counterpoint

■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4社 Capex 합계




자료 : Bloomberg

[2]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대형 사업자(美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中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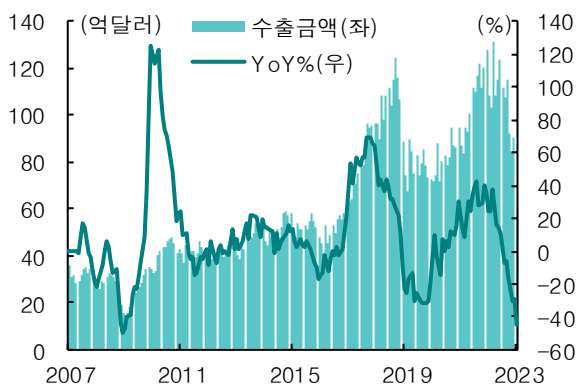
■ 수요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실적이 부진하지만 하반기부터 회복세 전망

- 1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IT 세트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44.5% 감소한 6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를 견인
 - 2월 1~20일까지 수출액은 38.3억달러로 지난해 67.9억달러 대비 43.9% 감소
 - 조업일수 이틀 감소(지난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출액은 51.2% 떨어진 셈
-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도 13%까지 하락하면서 2016년 11월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반도체 수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8년 9월(24.5%)
- 반도체 수요가 되살아나는 2분기 이후 재고 감소와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수출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부터 다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지난해 1~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월 100~130억달러(월평균 114억달러)를 기록하다 10월부터 80~90억달러(월평균 89억달러)로 감소하여 3분기까지 기저가 높은 상황

■ AI 서비스 확대로 스페셜티 제품 수요 증가하며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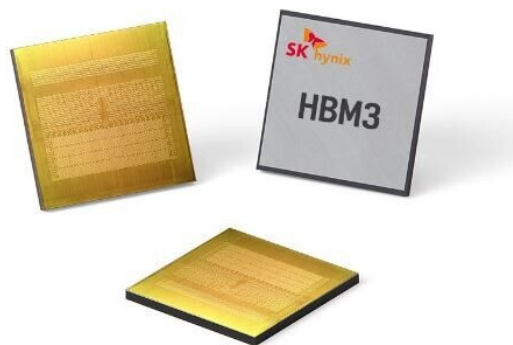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열풍이 불면서 이와 관련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신규 시장 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음
 - 계절적 비수기에도 1월 TSMC의 매출은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YoY 16% 증가
-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스페셜티 메모리인 HBM(고대역 메모리), PIM(연산 기능이 있는 메모리) 등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부분 생산 중
- 당장의 챗GPT뿐만 아니라 향후 AI 기반 플랫폼 및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 

■ 월간 반도체 수출 금액 및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자료 : SK하이닉스

중국 빅테크들의 챗봇 개발 가속화

강미정 연구위원(ashleykang@hanafn.com)

대화 전문 AI 챗봇인 챗GPT의 등장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바이두와 알리바바, 넷이즈 등이 AI 투자 확대 및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바이두는 챗GPT의 중국판 버전인 Ernie Bot의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곧 출시 예정이며, 향후 자사의 검색 엔진 등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챗GPT의 상업적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확도 및 보안, 오류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서비스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가 급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들이 경쟁에 본격 합류

- 美 오픈AI가 2022년 11월 출시한 챗GPT(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가 주목 받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이 AI 챗봇 경쟁에 가세
 - 챗GPT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로 문자와 이미지, 음악,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며,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이목이 집중
-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자체 검색 엔진인 BING에 적용해 채팅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대화형 AI 바드(Bard)를 공개

■ 중국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정부의 지원도 강화¹⁾


- 바이두(Baidu)와 알리바바(Alibaba), 넷이즈(NetEase)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AI 투자 확대 및 기술개발을 가속화
 - 정책 당국은 디디추싱의 美 증시 상장 이후 국가안보 및 공익 보호 등의 명목으로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였으나, 최근 기초를 완화하고 지원 의지를 표명
- 중국 내 AI 챗봇 스타트업 설립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초 중국 AI 관련 기업 수는 약 250만개에 달하며, 이 중 1~5년 내 설립한 기업이 절반 이상
 - '22년 중국 내 생성 AI 스타트업들이 유치한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
 - 챗GPT의 기반이 되는 초거대 AI 특허 출원 수의 경우 중국이 '20년 기준 1만 3천여 건으로 미국(1만 5천여 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 차지
- 한편 베이징시 정부는 AI 선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거대 AI 언어 모델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난해 4만 명이 넘는 인재를 유치

[1] “China plays catch-up to ChatGPT as hype builds around AI”, FT, 202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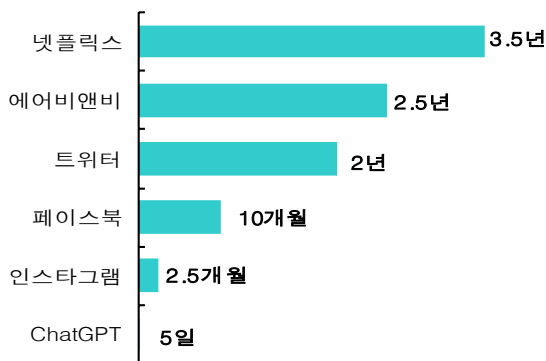
■ 중국 기업 중 바이두가 3월 챗GPT의 중국판 서비스인 Ernie Bot을 출시할 예정

- 바이두는 내부 테스트 완료 이후 AI 챗봇을 공개할 예정이며, 검색 및 전기차, 스마트 비서 등 자사의 플랫폼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 중
 - Ernie는 먼저 독립형 앱으로 출시되고 점진적으로 바이두 검색 엔진과 통합을 진행
 - 이에 앞서 푸단대학교 개발팀에서 중국 최초의 챗봇 플랫폼으로 홍보한 모스(Moss)를 공개하였으나, 트래픽 급증으로 서버가 다운된 이후 폐쇄
- 최대 검색 업체인 바이두는 그동안의 검색 데이터 축적과 방법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상황으로 Ernie의 대화생성 플랫폼의 경우 매개변수 수가 챗GPT를 상회
 - GPT의 성능은 매개변수의 개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바이두의 AI 대화 생성 플랫폼인 PLATO-3의 매개변수 수는 2,600억 개로 챗GPT(GPT-3.5)의 1,750억 개를 상회
- 다만, 기술적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AI 챗봇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한 검열 및 통제 가능성 등으로 상용화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 챗GPT의 상업적 잠재력으로 국내외 일반 기업들도 업무적 활용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정확도, 보안, 오류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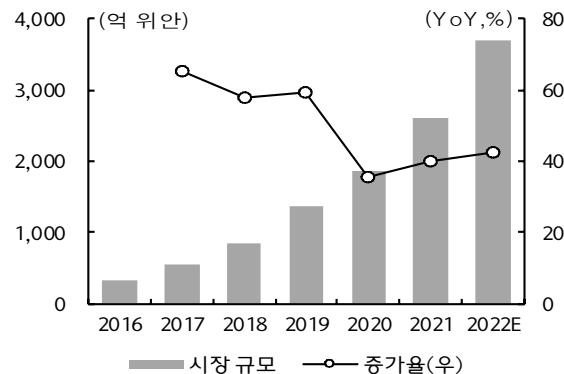
- 향후 챗GPT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업적 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
 - 美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챗GPT의 정확성과 편리성 등으로 SNS 홍보, 고객 응대, 주택담보대출 계산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
- 다만 실시간 학습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저작권 침해 및 편향성 등의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기업들의 상업적 사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미국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에 이어 JP 모건 등 민감한 고객 정보를 다루고 있는 기업들은 회사 시스템에서 AI 챗봇 사용을 금지 

■ 주요 플랫폼들의 100만 명 신규 회원 가입 소요 시간



자료 : Statista

■ 중국 AI 시장 규모 추이



자료 : 중국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Wells Fargo, 기업금융 플랫폼 고도화

황 선 경 수석연구원(skhwang@hanafn.com)

최근 Wells Fargo는 기업손님의 디지털 경험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반의 플랫폼 ‘Vantage’를 런칭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비즈니스 페르소나’를 정의하고 플랫폼을 모듈식으로 설계하여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기업손님의 디지털, 맞춤형 금융 니즈가 증대되면서 글로벌 은행들이 기업금융 플랫폼 고도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들도 기업손님과의 관계 심화를 위해 개인에 치중된 디지털 혁신역량을 기업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Wells Fargo, 기업손님의 디지털 경험 향상을 위한 AI기반 플랫폼 Vantage 런칭^[1]

- ‘Vantage’는 조직 내·외부의 기술을 혼합하여 단일 플랫폼에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금융·비금융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현한 one-stop-shop
 -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플랫폼에 핀테크의 서비스를 통합하고, 개인·기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API를 사용자 중심으로 리엔지니어링하여 활용도 제고
- 기업손님은 인공지능(AI) 및 기계학습(ML)을 기반으로 하는 ‘Vantage’를 통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진화하는 금융 니즈에 맞추어 계정을 커스터마이징
 - AI는 플랫폼 사용자의 요구에 기반한 권장 사항 및 next step 제안에 사용되고, ML은 개인화 서비스 개선에 활용
 - Vantage의 추천 엔진(recommendation engine)은 기업손님의 행동을 평가하여 사람보다 더 규칙적이고 일관성있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

■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페르소나’ 개발과 모듈식 설계로 기업손님 개인화 서비스 구현


- 비즈니스 페르소나는 회사의 매출, 직원 수, 필요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복잡성에 따라 총 19개로 구분
 - 페르소나는 고객의 다양성(성별, 국적 등)과 기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라벨링 (ex.Ambitious Amy, Efficiency Ella, Organized Olivia)
- 은행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플랫폼 내에 모듈식으로 설계하여 사용자가 기업의 성숙도에 따라 맞춤형 대시보드를 구축하도록 개발
- 또한 플랫폼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기업이 비즈니스 성장 및 개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

[1] “How Wells Fargo Rebooted—and Personalized—Digital Business Banking”, The Financial Brand, 202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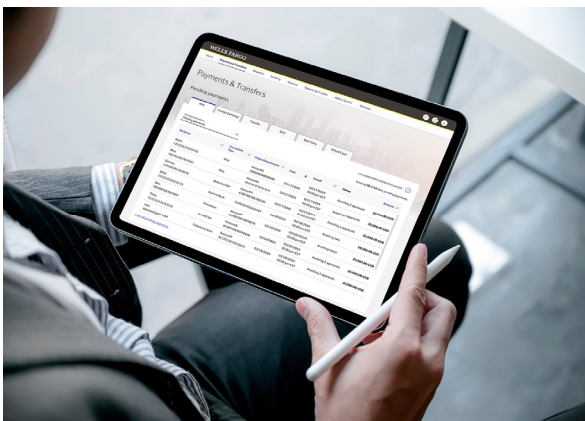
■ 글로벌 은행은 기업손님의 디지털 금융 니즈 증대에 기업금융 플랫폼 고도화로 대응

- (HSBC) 2025년까지 기업금융에 디지털 CIB 사업(플랫폼 경쟁력 제고, SME 손님 기반 확대 등) 강화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계획
 - CIB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Global Tech Team을 구성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맞춤형 플랫폼·솔루션을 제공하여 손님경험 향상을 도모
 - 다양한 솔루션 모듈을 단일 플랫폼에서 패키징하는 방식으로 CIB 상품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운영으로 손님 및 교차판매 확대를 기대
- (MUFG) 대기업 금융니즈의 통합 관리를 위해 ‘MUFG RM-PO모델’을 개발하고 SaaS 사업자들과 제휴하여 기업손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 솔루션 역량 향상을 위해 관계사간 인력교류 등 그룹 통합인력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RM, PO(product office)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리서치&자문 조직을 신설
 - BusinessTech, NTT 데이터 및 Salesforce와 연계로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 국내 은행들도 현재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디지털 혁신 역량을 기업으로 확대시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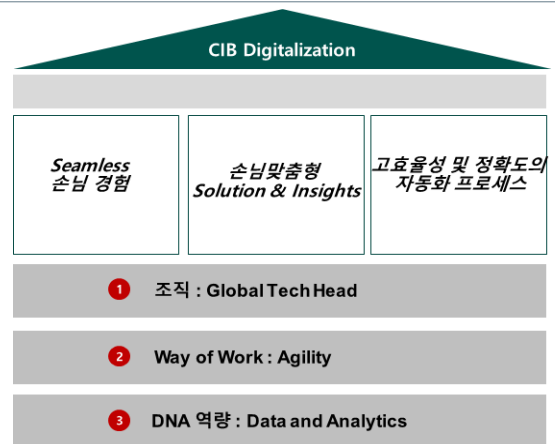
- 국내 은행들도 기업금융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 활동을 지원하면서 기업손님 유치 전략으로 플랫폼을 활용하는 추세
 -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웹사이트 고도화, KB스타기업뱅킹 앱 리뉴얼
 - (신한은행) 기업 비대면 채널 전면 개편, 경영지원 플랫폼(비즈메이트) 신규 구축
- 빅테크와의 기업손님 유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기업손님의 디지털 서비스 니즈에 부합하는 플랫폼 혁신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
 - 더존, 네이버 등 비은행 기업들도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금융 플랫폼을 출시
 - 단순 여신 외 경영상 필요한 기업손님의 비금융 니즈를 심도있게 파악 

■ Wells Fargo Vantage 플랫폼



자료 : Wells Fargo 홈페이지

■ HSBC의 CIB 디지털 전환 전략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리: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과 열린 결말

윤 석 진 연구원(sjyun826@hanafn.com)

글로벌 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및 물가의 예상치 상회 등에 따른 연준 긴축 강화 우려 속에 상승했다. 국내금리는 대외발 긴축 강화 우려에 상승하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및 경제전망 하향 조정 등에 반락했다. 한은 총재는 이번 동결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연준의 정책 행보보다는 대내 여건 및 물가가 우선적 고려사항임을 언급했다. 국내 시장금리는 당분간 상/하단 폭이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대외 변수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을 나타낼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美 경제지표 호조 및 물가 예상치 상회에 따른 긴축 강화 우려 속 상승

- 최근 발표된 미국 주요 경제지표의 호조로 인해 일각에서 하드 랜딩/소프트 랜딩이 아닌 ‘노 랜딩(no landing)’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美 경기침체론이 후퇴
- 특히, 1월 비농업 취업자수 확대 및 실업률 하락에 따른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 1월 소매판매 및 제조업·서비스업 PMI 등이 연이어 예상치를 상회한 점 등이 부각
 - 美 소매판매(전월 대비) : 22.11월 -1.0% → 12월 -1.1% → 1월 +3.0% (예상 +1.9%)
 - 美 제조업/서비스업 PMI : 23.1월 46.9/46.8 → 2월 47.8/50.5(예상 47.1/47.2)
- 아울러 미국 1월 물가지표 또한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며 美 최종 기준금리 상향·3월 빅스텝 가능성 등 긴축 우려가 재부각
 - 美 CPI/PPI(% , YoY) : 22.11월 7.1/7.3 → 12월 6.5/6.5 → 23.1월 6.4/6.0 (예상 6.2/5.4)
- 美 금리는 점도표 상 최종 금리(5.25%)보다 높은 수준의 최종 금리(5.5%)를 반영해 상승
 - 美 국채 2/10년물 금리(%) : 2.10일 4.51/3.74 → 17일 4.63/3.82 → 9일 4.70/3.89


■ 국내금리는 대외발 긴축 강화 우려로 상승하다 한은 경제전망 하향 등에 상승폭 축소

-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인한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 상향 및 빅스텝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2월 금통위에서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상황
-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인상 소수의견 1인)했으나, 총재는 이번 동결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는 등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
 - 그러나 대내 물가여건을 우선시하는 발언과 경제전망 하향 등으로 당일 시장금리 하락
- 국내금리는 대외금리 오름세에 연동돼 상승하다 경제전망 하향 등으로 상승폭 축소
 - 국고 3/10년 금리(%) : 2.10일 3.40/3.37 → 17일 3.64/3.63 → 24일 오전 3.58/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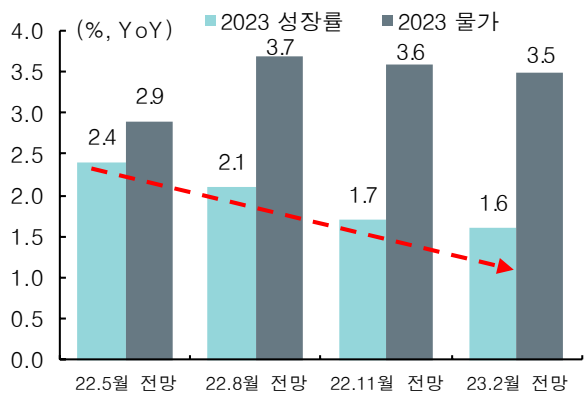
■ 2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나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의지는 여전

- 금통위는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가 경로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결정(3.5%)
 - IT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소비 약화로 '23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1.7% → 1.6%)하고, 물가의 경우 낮아진 유가 전망치 등으로 하향조정(3.6% → 3.5%)
 - 통방문에서는 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임을 명시
- 총재는 이번 동결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했으며, 최종 금리에 대한 의견 분포는 3.50% 1명, 3.75% 가능성 열어두자는 의견이 5명임을 언급
 - 반면, 연준 건축 강화 우려 불구 대내 여건 및 물가가 우선적 고려사항임을 강조
 - 향후 물가에 대해 2월 5% 내외 → 3월 4%대로 둔화 → 연말 3%대 초반의 경로를 상정
- 통방문과 총재 발언은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정책 여건 상 불확실성이 높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며, 성장률 및 물가 전망 하향조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
-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1/4분기 이후 물가 위험은 점차 낮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은의 물가 전망 경로에서 유의미한 이탈 없을 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
 - 다만, 하반기 국내 경기의 회복 전망과 연말까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경로, 美 건축 장기화 조짐 등은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금리는 상/하단 폭이 제한된 상태에서 대외 변수 전개 양상에 따른 변동성 장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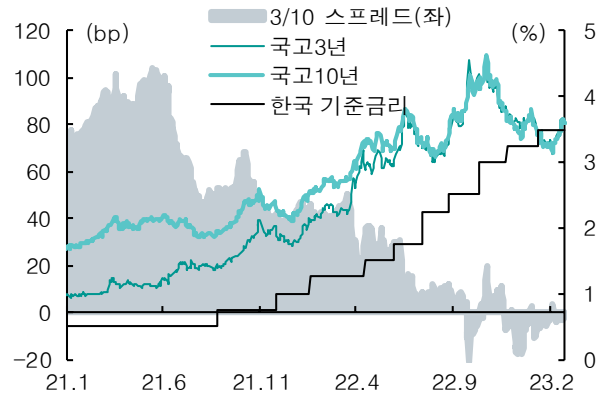
- 美 금리는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확대됨에 따라 미국 PCE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며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국내 시장금리는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가 약화되고 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당분간 상/하단 폭이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등락을 이어갈 전망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45%~3.75%, 3.40%~3.70% 범위로 전망 

■ 한국은행 수정 경제전망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국내 주요 금리 추이



자료 : Infomax

외환: 통화정책 향방에 따른 高변동성 장세

오 현 희 연구위원(hyunheeoh@hanafn.com)

달러화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미국의 물가지표 및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며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흐름 속 무역적자 지속과 외국인 주식 매수세 약화 등으로 수급우려가 확대되고 엔화 및 위안화 약세 등에 동조되며 주요 통화중 가장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다. 향후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화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 [원/달러 환율] 연준 긴축 우려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1,300원 돌파

- 원/달러 환율은 예상을 상회하는 美 물가지표와 소매판매 개선에 따른 연준의 긴축 우려 강화 및 위험회피 심리 확대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상승
 - 연저점을 기록하였던 2.2일(1,216원) 이후 11 거래일 만인 2.17일 연고점(1,304원) 기록
- 다만,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 둔 가운데 외환당국 구두개입,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 등이 상승 폭 제한
 -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임을 명시


■ [국제 환율]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로 달러화 강세

- 달러화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미국의 물가(1월 CPI 6.4%, 예상 6.2%) 및 경제지표(소매판매 3.0%, 예상 1.8%) 등으로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며 강세 지속
 - 매파적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이어 2월 FOMC 의사록에서 강력한 물가 대응 의지를 재확인 하는 등 상당기간 긴축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강세
- 유로화는 달러화 강세 속 유로존 12월 산업생산 부진(전월대비 1.1% 감소)과 지난해 유로존 경상수지 적자 기록(1,060억 유로) 등이 절하 압력으로 작용
- 위안화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미·중간 갈등 지속 우려와 인민은행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약세
 - 美 재무부 차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언급
- 엔화는 사상 최대 무역적자와 제조업 업황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열린 청문회에서 우에다 총재 후보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의사를 밝히면서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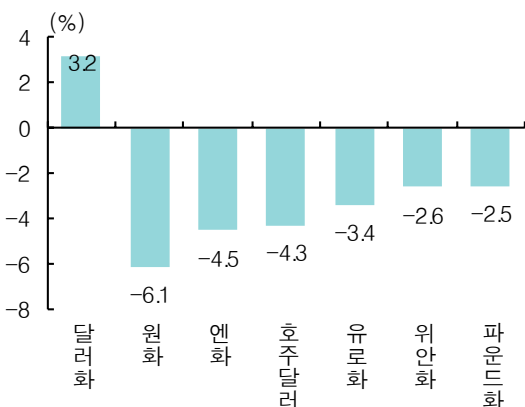
■ 달러화 강세 속 주요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의 절하 폭이 큰 모습

-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주요통화가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나, 원화의 경우 2.1~23일 중 6.1% 절하되며 주요통화대비 가장 큰 폭으로 변동
- 美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금리인상 사이클 조기 종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 확대 등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인 측면
- 1월 사상 최대 무역적자에 이어 2월에도 적자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험회피에 따른 외국인 주식 매수세 약화 등 수급 우려가 확대된 점도 원화 약세 요인
 - 2.1~20일 \$60억 무역적자,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전환(1월 6.3조→ 2.15~23일 -0.6조)
- 당분간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한·미간 금리 격차 확대 및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적자 지속 등이 예상되어 원/달러 환율의 상방압력이 지속될 가능성

■ 원화는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고변동성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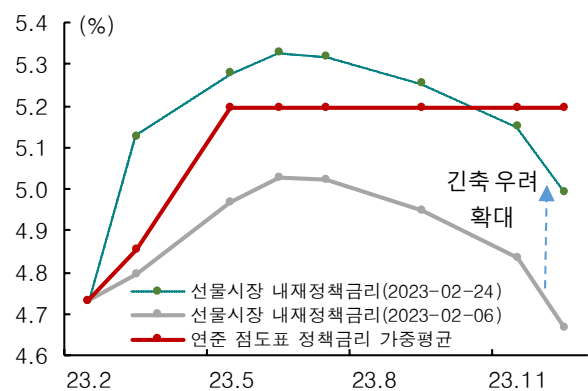
- 원화는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과 긴축 지속 기간 불확실성, 미·중간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상방압력이 지속될 가능성
- 다만, 환율 상승에 따른 당국의 경계심리 지속, 3월 中 양회에서 대규모 부양책 발표 기대감에 따른 위안화 강세 전환 가능성 등은 상단을 제한할 가능성
-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통화정책 경로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며 1,275~1,330원에서 등락할 전망 

■ 2월 중 주요통화 변동률



주: 2.1~23일 기준
자료: Bloomberg

■ 연준과 시장의 미국 정책금리 전망



자료: Bloomberg

부동산: 심리 위축과 거래 침체는 시장 회복을 지연

하 서 진 수석연구원(seojinha@hanafn.com)

고금리 여건, 관망세 지속, 매물적체로 매매가격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규제 완화 영향으로 매물이 일부 소화되면서 가격 하락폭은 축소되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반등했으나 여전히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며 수요 회복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분양물량이 입주예정물량으로 공급되면서 하방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금난으로 수분양자가 입주를 지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저가 매물이 증가하면서 매매가격 반등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 매물 적체 중이나 규제 완화로 매물이 일부 소화되며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폭 축소

- 고금리 여건, 관망세 지속, 매물 적체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유지 중이나 규제 완화(1.3일) 영향으로 매물이 일부 거래되면서 하락폭 축소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MoM) : -1.37('22.11월) → -1.98(12월) → -1.49('23.1월)
-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가격 변동성이 크고 타 유형 대비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에서 가격 하락폭 축소가 크게 나타남
 - 유형별 상승률(% MoM, 12월/1월) : 아파트 -2.91/-2.12, 연립 -0.85/-0.53, 단독 -0.13/-0.11
- 지역별로는 주택과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수도권과 서울에서 가격 하락폭 축소가 나타났으며 5대광역시는 적게 축소
 - 지역별 상승률(% MoM, 12월/1월) : 서울 -1.98/-1.25, 수도권 -2.60/-1.86, 5대광 -2.05/-1.64


■ 심리지수가 반등했으나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며 수요 회복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

-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 등으로 규제가 완화된 결과 아파트 매수심리가 반등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동향 : 113('20년말) → 96('21년말) → 70('22년말) → 73(2.13일)
-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대하는 매매가격 간 차이가 존재하고 관망세와 함께 높은 금리 부담은 거래량 회복과 수요 진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또한 전세 보증금 미상환 리스크로 월세 선호가 증대되면서 전세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갭투자 등의 거래도 감소해 매매거래량 감소에 영향
 - 전세/월세 거래 비중(%) : 52/48('22.1Q) → 45/55(2Q) → 48/52(3Q) → 47/53(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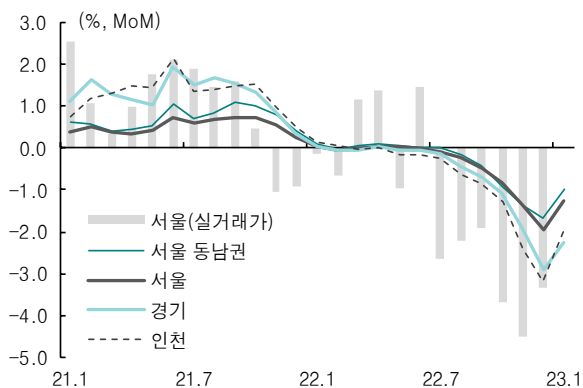
■ 입주물량 증가로 하방압력이 가중되고 거래 침체로 입주 연기 증가 시 시장 회복 지연

-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예정물량은 감소추세이나 기존 분양물량이 입주예정물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가격 하방압력 가중
 - 분양예정/입주예정(만호) : 17/14('22.상) → 20/19('22.하) → 13/17('23.상) → 10/18('23.하)
- 차주별 DSR 규제 유지, 매물 적체 및 거래 침체 등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입주를 연기하는 수분양자가 증가할 가능성
- 매매 거래를 위한 저가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입주예정물량의 실입주를 위한 임대물량이 적체되면서 매매 및 전세시장 반등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

■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되었으나 사업성을 장담하기 어려워 시장 기대는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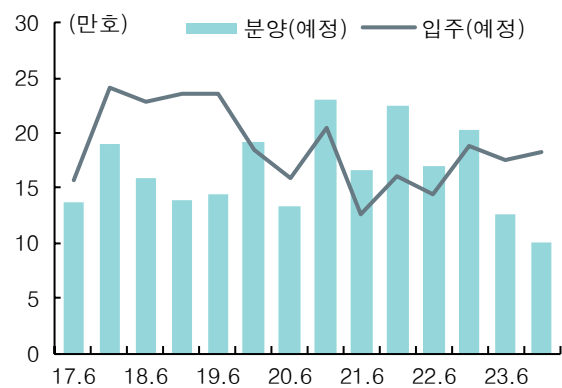
- 재건축 추진 활성화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으로 재건축 인허가 통합심의, 재건축 기준 완화(연한, 면적 등),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등이 골자
 -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에 재건축 가능
- 하지만 고밀도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실입주까지 장기간 소요 등이 예상되고 건축비 증가, 미분양 우려로 사업성을 장담하기 어려워 기대감은 낮은 상황
 - 재건축 단지 거주민의 이주 공간 확보 문제 또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걸림돌
 - 1기 신도시는 기존 용적률에 맞춰 인프라 시설이 설계되었으며 용적률 상향 시 인프라 확충 비용이 발생해 재건축 사업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
- 또한 재건축 절차상 의견 취합이 필요한 절차(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와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재건축 추진 활성화에 난관으로 작용할 우려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종합주택 매매가격, 공동주택 실거래가)

■ 분양(예정)물량 및 입주(예정)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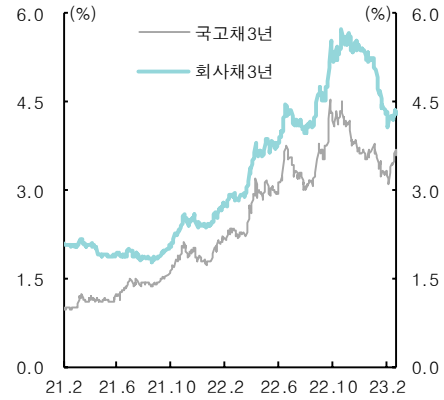


자료 : 부동산114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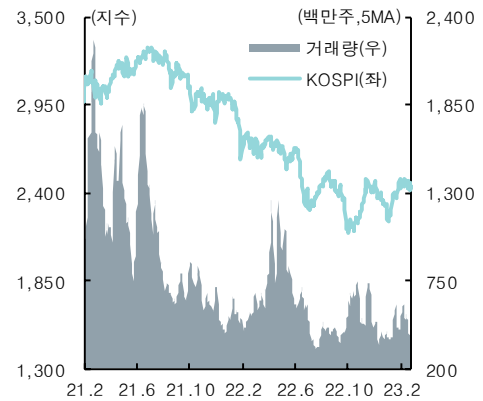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1월말	3.34	3.63	3.59	4.34	3.33	3.30
2월 17일	3.44	3.52	3.72	4.35	3.64	3.65
2월 20일	3.42	3.53	3.74	4.37	3.68	3.69
2월 21일	3.40	3.54	3.73	4.32	3.62	3.64
2월 22일	3.42	3.56	3.76	4.34	3.65	3.68
2월 23일	3.46	3.59	3.75	4.31	3.60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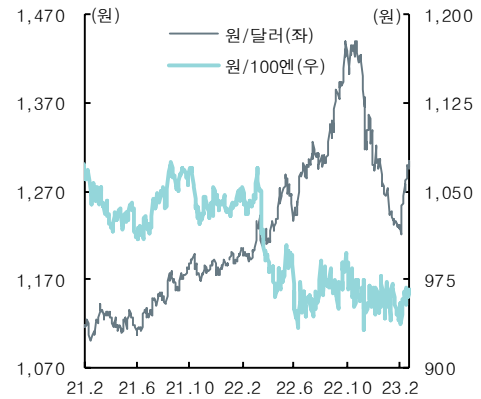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1월말	2,425.1	103,948	617	-4,751
2월 17일	2,451.2	83,645	514	1,196
2월 20일	2,455.1	75,355	390	-3,154
2월 21일	2,459.0	73,336	495	299
2월 22일	2,417.7	83,863	427	-1,951
2월 23일	2,439.1	74,520	401	109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1월말	1,231.9	946.6	182.4	1,339.2
2월 17일	1,299.5	968.4	189.2	1,389.8
2월 20일	1,294.5	964.2	188.9	1,383.1
2월 21일	1,295.9	960.4	188.6	1,379.4
2월 22일	1,304.9	967.0	189.4	1,383.4
2월 23일	1,297.1	963.3	187.7	1,3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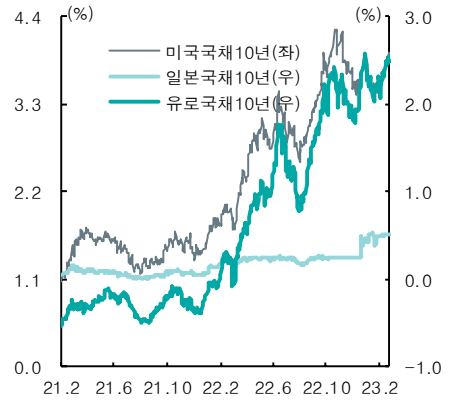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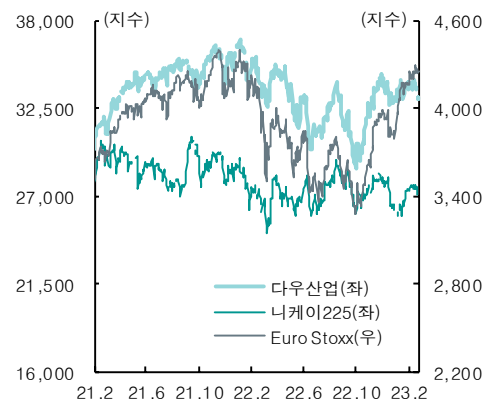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22년말	4.33	4.77	4.43	3.87	0.42	2.57
1월말	4.33	4.81	4.20	3.51	0.50	2.29
2월 17일	4.58	4.92	4.62	3.81	0.51	2.44
2월 20일	-	4.91	4.62	3.81	0.51	2.46
2월 21일	4.58	4.92	4.72	3.95	0.51	2.53
2월 22일	4.58	4.93	4.69	3.92	0.51	2.52
2월 23일	4.58	4.96	4.70	3.88	0.51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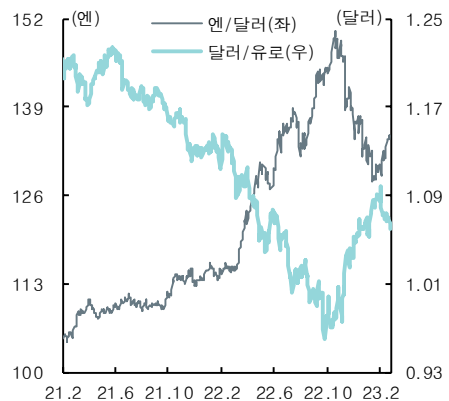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3,147.3	26,094.5	3,089.3	3,793.6
1월말	34,086.0	27,327.1	3,255.7	4,163.5
2월 17일	33,826.7	27,513.1	3,224.0	4,274.9
2월 20일	-	27,531.9	3,290.3	4,271.2
2월 21일	33,129.6	27,473.1	3,306.5	4,250.4
2월 22일	33,045.1	27,104.3	3,291.1	4,242.9
2월 23일	33,153.9	-	3,287.5	4,258.2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1월말	130.13	1.087	80.9	1,945.3
2월 17일	134.19	1.069	82.2	1,850.2
2월 20일	134.26	1.068	82.4	-
2월 21일	134.94	1.064	81.9	1,842.5
2월 22일	134.94	1.060	80.8	1,841.5
2월 23일	134.64	1.060	80.1	1,826.8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5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3년 2월 24일 인쇄

2023년 2월 27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김영준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5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